

광주창의융합교육원 광주수학체험센터, '주말 수학체험 프로그램'

초등학생 64명 대상...매월 두 번째 토요일 운영

현장 초등교사가 수학교육 현직연구원으로 참여

학년군별 교육과정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해

광주창의융합교육원 광주수학체험센터가 '주말 수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수학체험센터는 광주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및 교사를 위해 다양한 수학교육 맞춤형 연수 및 학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말 수학체험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1~6학년 64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시작했고, 매월 두 번째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현장 초등교사가 수학교육 현직연구원으로 참여했고, 학년군별 교육과정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양한 주제로 '주말 수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과 학부모

에게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광주창의융합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한 학년별 신청이 3~10분 만에 마감돼 확대·운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실시된 '주말 수학체험 프로그램'에서는 1~2학년의 경우 두 개 반으로 나눠 실시됐고, 덧셈식과 무게따기, 연산 보드게임, 셰어5, 기억력 게임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 감각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3~4학년의 경우 논리적이고 순차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고 이를 적용해볼 수 있도록 레이어스, 로직카드를 이용한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운영됐다. 5~6학년의 경우 펜토미노와 블로커스를 활용

해 도형을 뒤집고 회전하며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공간 감각과 창의성을 키우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4월 주말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각화초 한 학생은 "저학년 때부터 참여했는데 매년 새로운 주제로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어 기대가 되고, 자주 참여하기 위해 부모님께 부탁하지 않고 매달 신청기간을 확인해 직접 신청한다"며 "방역지침을 지키며 수업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4인1조로 토론 및 발표를 통해 재밌게 체험을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수학체험센터는 주말 체험뿐만 아니라 방학 특별 프로그램, 중·고등학교 수학탐구교실, 초·중·고등학교 수학 프로그램 교실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수학을 문화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학버스킹'도 매달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수학체험센터에서 이뤄지는 모든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수학 교과 역량 강화와 진로 체험 연계를 위해 수학교육 현직연구원을 포함



한 수학교원들이 함께 연구·개발한 주제로 진행된다.

광주창의융합교육원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과학·수학체험을 통해 학교 단체 체험을 지원할 예정이다"며 "하반기에는 학

년·학기·동아리 단위의 체험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 단위 체험프로그램을 기획해 꾸러미 배부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윤희기자



화순공공도서관, '꿈 배달 독서 프로그램' 개강

책 읽고 글쓰기·역할극 놀이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경험

전라남도교육청 화순공공도서관은 6일부터 6월까지 화순 관내 지역아동센터 7개 기관과 연계한 '2021년 꿈 배달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독서지도 전문가와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고 글쓰기, 역할극 놀이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도서관의 대표적인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간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해 총 4,982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7개 기관 78명의 어린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책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고 책을 통한 상상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며, 어린이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책에 흥미를 느끼고 도서관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도서관은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학생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여 도서관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담양교육청, 초·중·고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자 협의회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주) 학교지원센터는 8일 초·중·고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협의회를 실시했다.

방과후학교 중점사항 공유를 통한 업무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개선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전달 연수, 방과후학교 분야 청렴도 향상 방안,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 유의사항 안내 순으로 진행했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한 상호 간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현장의 어려운 점을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무리하였다.

협의회에 참석한 교사는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업무에 대해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현장과 소통하고 지원하려는 학교지원센터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철주교육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안전한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



생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며 감동주는 담양교육을 위해 함께 하자"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광주동부교육청, 맞춤형 수업 컨설팅 '수업 Talk!' 운영

컨설팅 요청 교사의 요구 반영...맞춤형 컨설팅 계획에 따라 운영될 예정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13일부터 12월까지 수업역량 강화 및 교실수업개선을 희망하는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수업 컨설팅 '수업Talk!'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업 Talk'은 수업연구 분야나 수업 중 어려움을 겪는 내용 등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해결해 나가며 배움중심·참여중심의 수업문화를 확산하고 자발적 수업 나눔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수업성장지원 프로그램이다.

'수업 Talk'은 일회성 컨설팅이 아닌 지속적 컨설팅으로 4~12월 매월 1회 진행된다. 컨설팅 요청 교사의 요구를 반영해 컨설팅 내용을 파악 후 맞춤형 컨설팅 계획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수업 Talk'을 통한 다양한 수업 사례별 컨설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학습상황에서의 학습격차 해소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고민과 대안 찾기 ▲학생의 삶과 연계한 배움중심 수

업 실천 ▲토의·토론 및 프로젝트 수업 적용 ▲학생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 활성화 방안 찾기 등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사의 지속적인 배움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업과 더불어 교실수업에 기반이 되는 학급운영에 대한 컨설팅도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 과정 중에도 필요 시 맞춤형 컨설팅 위원의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9개월 동안의 '수업 Talk!'이 마무리 되는 12월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의 수업성장 돌아보기'라는 공유의 시간도 갖게 된다.

최윤희기자

